



문화가 흐르는 보스턴의 오후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 위치한 퀸시마켓(Quincy Market). 17일 오후 거리 공연자(street performer)들이 광장에서 관광객들에게 멋진 공연을 보여주고 있다. 상인조합적인 '페넬홀 마켓 플레이스(Faneuil Hall Marketplace)'가 주최하는 이 공연은 보스턴에서 활동 중인 거리 공연자들을 한데 모아 관광객들에게 즐거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보스턴=김진수기자 jeans@

문화수도, 이제 콘텐츠다

亞문화전당, 최고의 문화상품 만들기 지금부터 머리 맞대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완공을 3년여 앞두고 광주 문화중심도시와 문화전당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에 대해 지금부터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문화전당 개관 후에야 여기에 채워 넣을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모색하는 식으로는 세계 속에 광주문화전당의 브랜드를 각인시키지 못하는 것은 물론, 파리 퐁피두센터와 빌바오 구겐하임미술관 등 기존 해외 유명 문화 시설과의 차별화에도 실패할 가능성

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과 광주시가 내년 말 일부 시설을 부분 개관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콘텐츠와 프로그램 준비에 정부와 지역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7000억 원 규모의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돼 6년여의 공사기간을 거친 세계 유일의 문화전당에서 만들어질 콘텐츠는 광주를 넘어 대한민국이 세계무대에 선보이는 최고의 상품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아시아를 포괄

하는 공통된 가치와 이야기를 광주의 문화예술 및 첨단기술과 결합시키고, 세계문화의 주류인 서양의 문화콘텐츠와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차별화된 문화콘텐츠를 생산하는 것이 필수 조건이다. 문화전당은 아시아의 숨겨진 이야기들 문화작품과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게임 등으로 풀어내 전세계에 발산하는 문화발전소, 문화전진지가 돼야 한다. 광주로 물러들 전세계 문화예술인의 창의력과 상상력, 문화 관련 첨단 기술, 기업·정부·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을 효과적으로 결합해 조인 K. 톨링의 '해리포터' 시리즈나 제임스 카메론의 '아바타'와 같은 최고수준의 문화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역시 당면 과제다. 또 이러한 콘텐츠를 포장하고 상품화하는 문화인력의 양성과 문화기업 유치,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화예술인

들이 상시 머무르고 교류할 수 있는 장소의 제공, 호남의 매력적인 관광 자원과 문화전당의 연계, 문화콘텐츠의 지속적인 생산·소비 시스템 구축도 '2014년 이후 광주'를 결정지을 중요 사안이다. 이병훈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은 "문화전당 개관 1년 내 200만 명이 찾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문화전당의 성공적인 안착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를 세계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이야기와 콘텐츠로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희석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원장은 "얼마나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하느냐의 여부가 문화전당 및 문화중심도시 성공의 관건"이라며 "앞으로도 꾸준한 논의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콘텐츠를 발굴·개발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전남과학대학
(061) 360-5050

학교설립 57주년 (1954-2011)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알림

창사 59주년 광주일보 또 한번 새로워집니다

2면에 '투데이'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날의 이슈

뜨거운 이슈, 잔잔한 감동. 광주일보의 2면을 펴면 오늘의 숨겨진 뉴스를 짧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숨겨졌던 화제들을 알게 됩니다.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중요 정책과 행사들도 브리핑 됩니다.



요일별 기획물, 챙겨보시면 무조건 유익합니다

월요일엔 교육, 화요일엔 건강&의료, 수요일엔 환경·과학, 목요일엔 여행 & 레저, 금요일엔 소비자. 요일별 기획물이 빠짐없이 독자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생활을 풍성하게 해주는 광주일보의 요일별 기획물은 유익한 정보를 듬뿍 담고 있습니다.



즐거운 생태계 산책 '국립공원의 야생화' 연중연재

변산바람꽃, 노루귀, 알레지, 진노랑 상사화, 쇠뿔무구꽃... 생동하는 이른 봄부터 여름, 가을까지 우리 산하에 피고 지는 정겨운 이름의 야생화들입니다. 하지만 환경오염과 자생지 훼손으로 인해 이들의 설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광주일보는 내장산국립공원 백암사무소와 공동으로 매일 7면에 '국립공원의 야생화'를 연재합니다. 백암산·지리산·월출산 등 전남북 국립공원에 자생하는 야생화들이 여러분의 아침을 싱그러게 해줍니다.



새롭게 선보이는 연중특집 기획물

전라도의 산하를 새롭게 발견하는 '남도의 길', 창조도시를 표방한 광주시가 살펴보아야 할 '세계 창조도시를 가다'에 이어 광주 전남북에 산재한 근대 건축물들과 그에 얽힌 근현대사를 재조명하는 새 기획물 '호남의 근대건축물'이 선보입니다. 6월부터는 유기농 시대와 귀농귀촌속에 부쩍 활기를 띠고 있는 전남의 농촌마을들을 소개하는 '지금은 농어촌시대'를 새로 연재합니다.



더욱 활짝 열린 오피니언 면, 지역민의 사랑채 피플&라이프

권위와 품격을 자랑하는 광주일보의 각종 칼럼을 비롯, 독자칼럼니스트들이 릴레이하는 '오피니언' 독자와의 쌍방향 소통을 이루는 오피니언면을 보다 가독성이 높은 19면에 배치합니다. 18면 피플&라이프는 정다운 우리 이웃들의 다채로운 삶을 보여드립니다.

光州日報社

창사 59주년 특집 지면안내

4·27 재보선 D-7.....4면	亞문화전당 위의 사람들.....16면
광주일보 59년.....6면	유럽·일본의 문화도시는.....17면
광주·전남 뉴파워 59인.....10·11면	김대중 기념관 어떻게.....20면
호남 첨단기술 융복합.....12면	1년 남은 여수엑스포.....21면
광주의 미래 亞문화전당.....14·15면	창사 시설·오피니언.....27면

2012 여수세계박람회 공식후원은행

Super Regional Bank

창사 59년
광주일보 1962-2011

KJB광주은행이 초우량 지역은행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KJB **광주은행**